

농어촌공사에 감사원 감사·세무조사

국힘, 사장·이사급 '알박기' 지목 이후 진행 관할청도 아닌 부산국제청이 세무조사 앞장 김희재 "사정기관 통한 정치보복·직권 남용"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라고 지목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감사원이 전방위적인 대규모 표적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지난 3월 24일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전수조사 결과, 해당 되는 인원이 총 59명으로 집계됐다"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제청도 농어촌공사에 대한 비상직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을 위한 일종의 정치 보복이자 명백한 직권 남용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여수)이 7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지난 8월 31일부터 시작된 '재무건전성 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 등의 감사를 포함한 5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무건전성 관리·경영관리 실태(감사원 공공기관 3과-수감부서 전 부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실태(감사원 외교국방1과-수감부서 해외사업처) ▲어촌뉴딜300 추진(감사원 국토환경 4과-수감부서 어촌수산처) ▲신재생에너지 추진 실태(감사원 산업금융 1·2과-수감부서 총무인

사처, 농지은행처) ▲기후위기 적응·대응 실태(감사원 미래전략1과-수감부서 기반사업처, 수자원관리처) 등이다.

이 중 실지감사가 이미 진행 중인 감사만 4개에 달했다. 특히 '재무건전성 관리·경영관리 실태' 등의 감사는 8월 31일 시작돼 12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 기간만 약 3개월에 이른다.

감사원은 이에 더해 '어촌뉴딜300 추진', '신재생에너지 추진 실태' 등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겠다"는 식의 감사를 위한 감사 아니냐"는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으로서 5년에 한 번인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이미 받은 바 있다. 또 올해 3월에는 기부금 징점 건을 두고 공익 감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농어촌공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또 다시 감사원의 전방위적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은 이병호 사장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서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란 관측이다. 이 사장은 올해 3월 3년 임기의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국제청 역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국제청은 지난 9월 2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무조사 기간은 12월 16일까지다.

그러나 부산지방국제청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관할 구역 밖의 일여서 그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지방국제청의 관할 구역은 부산시·울산시·경남도·제주특별자치도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남 나주에 위치하고 있다.

김희재 의원은 "사정기관들이 원팀으로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결론을 정한 정치보복이자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진수기자

미국, 연봉 공개 법률 제정 확산 국회도서관 조사 결과... '급여 이력 조회'는 금지 추세

입법 화제

"연봉 얼마나 받으세요?"

미국에서 최근 가장 핫한 토픽 중 하나인 'salarytransparentstreet'는 길거리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에게 '직업이 무엇이고, 연봉은 얼마인가요?'라고 물어보는 것 뿐인데 팔로워가 무려 92만 명에 달하고 있다.

운영자인 해나 윌리엄스는 지원하는 업무의 연봉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없어 이직에 어려움을 겪었고, '연봉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자'는 취지로 토픽을 시작했다고 한다.

실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미국의 여러 주에서 연봉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취지의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는 올해 11월 1일부터 '월급 공개법'이 시행되고 있다. 4인 이상이 일하는 회사와 이 회사의 채용광고 대행사는 채용공고에 해당 직책의 최저·최고 급여를 명시해야 한다.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불법적 차별 행위로 뉴욕시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첫 위반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최대 25만 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워싱턴주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동일임금 및 기회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된 직원 수가 15인 이상인 회사는 채용 공고에 임금표나 급여 범위를 공개해야 하는데, 워싱턴주에 본사를 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기업 최초로 법에 따라 연봉 공개를 앞두고 있다.

연봉 공개와 함께 과거 급여 이력 조회는 금지되는 추세다. 급여 공개를 꺼리는 문화 때문에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이전 직장의 급여를 참고해 연봉을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런 관행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한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채용 절차상 필요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정하고 있다. 채용 광고와 관련해 거짓 채용 광고·채용 강요 금지, 채용 일정·과정 고지, 채용 심사 비용 부담 금지 등은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임금 등 특정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불법적 차별 행위로 뉴욕시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첫 위반

野비명계, 사당화 우려 확산... "홀리건 기대는 정치 극복해야"

이상민 "의혹 해소방안 중요" 박영선, 공천권 포기 주장 진성준, 비명계 비판 반박 "檢 정치 탄압에도 안정 운영"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에 의한 사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등 '사법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하는 상황이지만 이 대표가 지지층에만 매달리면서 유감 표명 등을 하지 않는다는 시각으로, 점차 불만이 증폭하는 모습이 다.

당 대표 경선 시기부터 이 대표와 각을 세운 이원욱 의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하루속히 '홀리건'에 기대는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후보일 때 국민이 기대한 모습은 공정과 정의의 사도였다"며 "그런데 공정과 정의는 사라지고 정치 홀리건에 기대는 듯한 모습만 보이니 사당화가 매우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취임 100일을 맞은 시점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나온 것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상민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대화하는 민주당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침저녁'에서 "공자 말씀 같은 건 국민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며 "사법적 의혹에 대해 국민이나 당원이 가진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 위기 극복 방안으로 대표의 공천권 포기를 언급해온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도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박 전 장관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가)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이 감동하고, 민주당이 가진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비명계의 이런 비판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KB 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정치 탄압에도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난데없이 공천권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박 전 장관을 직격했다. /연합뉴스

주철현, '올해의 최우수 의원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이 호남유권자연합으로부터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호남유권자연합은 지난 6일 광주시 4·19혁명이념관에서 열린 창립 22주년 기념식과 송년행사에서 민주당 주철현 의원과 양경숙 의원 등 2명에게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여했다.

2000년 5월 창립한 호남유권자연합은 5천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호남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서 특히 김관영 전복지사과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 23명의 전·현직 사회지도자급 인사들이 대거 소속돼 활동 중이다.

주 의원은 2020-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앞장서는 동시에 호남 현안과 민생을 챙기기 위한 국감을 이끌며 주목받았다.

특히 2022년부터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을 겸임하면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 검찰 예산 편성 불법성, 전남대-여수대 통합 약속 이행 촉구, 여수 고속도로 연장 등 중양 이슈와 지역구인 여수시 현안뿐 아니라, 호남 지역 의원들과 넓게 소통하고 협업, 지역예산 확보 활동에서도 성과를 보여왔다. /김진수기자

www.e-dk.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